

19 外邦測量沿革史  
외방측량연혁사

일본준부가 남의 나라를 측량한 기록이  
 2 3권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제1권  
 은 1895~1906년 까지의 기록인데 477쪽이  
 2 제2권은 1907년의 기록인데 462쪽이다  
 제3권은 1908년의 기록으로 459쪽이다  
 3 권은 1979년 일본 Tokyo에서 복사  
 본으로 출판 된 것이다 .

No.

No.

20X10

20X10

위 3권은 공히 北支那方面 司令部 參謀本部  
 (북지나 방면 사령부 참모본부) 사령부 참모본부)

에서 출간한 것으로 되어 있다

이 2권은 1939년에 출간한 것이니 따라서  
 는 1968년에 저금 20,000円 (약 23만원) 을 주고

TOKYO에서 구입했다

제 1권에는 1895년 ~~당시~~ 청일전쟁을 계기로

중국의 안미성 (安徽省) 浙江省 (浙江  
 省) 및 복건성 (福建省)에 대한 측량도

했다 1903년에는 우리나라의 평안도

황해도 ~~동~~ <sup>와 압록강</sup> ~~특량~~ ~~한~~ ~~군~~ 유역 일대기 대한

특량 등 했

일본이 남의 나라에 대한 특량 등 하기

시작한 것은 1881 1889 년 이후의 일이다

1907년의 기록에 의하면 회령(會寧) 무산

(茂山) 및 원성(穩城) 등지기에 대한 특량 반량

의 보고서가 있다

이 무렵 참모총장은 훈령 10 호로써

특량 반량에게 1907 년도 만주 <sup>에 대한</sup> 특량

구역 등 지시한바 동(東) 방향은

두만강 연안 및 한쪽 쪽 외의 기회 측량한

지역에 연접하여 회령(會寧) 자무속(岩木索)

· 갈탄(葛林)가드 및 은성(穩城) 평고탑

(寧古塔)가드 등 포함한 이대역 지역과

서(西)쪽으로는 회덕(懷德) 방면의 기측

량지역에 연접한 북쪽과 서쪽에 걸친 안

대의 지역에 대하여 신구 하라는 것이 있다

여기서 假設을 하면 선정 해 본다

1861년에 고산자(古山子) 김령호가 작성

한 대동여지도에 이 동쪽이 없음을 알

아 니 라 당 시 로 서 는 있 어 야 할 간 도 부

분 이 없 는 데 이 는 인 제 (日帝) 가. 선 시 한

두 반 강 인 대 의 추 랑 과 만 주 (간도 지역) 의

차 랑 이 ~~바 깃 카~~ 만 편 이 있 는 것 이 아 니 겠

는 가? 하 는 것 이 겠

국 경 리 대 이 남 은 보 병 대 위 가 지 후 하 는

제 1 반 은 원 산 인 대 통 제 2 반 은 서 은

와 그 일 대 통 제 3 반 은 평 양 과 그 부 근 은

제 4 반 은 대 구 와 그 부 근 ~~의~~ 추 랑 을 많 당

했 다

No

이 <sup>부족</sup>이 종사자들에게 내린 작업지침을

보면 ① 만약 추방한다면 사실이 밝혀

하지 않으면 개인적 판단에 의거 하는 것이 라고

강변하다 ② 간부의 이름이 나 특히 준라의

판례는 일체 능선치 말 것 이며 ③ 증거

물이 될 수 있는 기록(문서)은 휴대 하지 말 것

④ 한국인과 승강이름 변경하지 말 것 이며

북강해동 맞닥뜨리는 때는 단주가 상책이다 ⑤

또한 항문 때는 한복을 착용 하지-

No

1895~1937년까지 이 <sup>추방령리정비</sup> 순리자 127명의 명단도 있다

20X10

20X10